

12~17세 청소년도 '2가 백신' 접종 시작

2차 접종 3개월 후 지난 12일 부터 접종 화이자 BA.1, BA.4/5...노바백스도 가능

12~17세 청소년도 오늘부터 코로나19 2가 백신을 맞을 수 있다.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이 이날부터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2~17세 청소년 중 2차 기초접종을 마친 뒤 3개월이 지났다면 2가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

접종을 원하면 이날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자는 오는 19일부터 2가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이 위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높은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적극 권고' 대상이다. 심장·폐 등 호흡기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당뇨, 비만, 면역억제제 복용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추가접종에 활용되는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2가 백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2세 이상 접종을 허가한 화이자 BA.1 및 BA.4/5 기반 2가 백신이 해당된다.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성분

에 이상 반응을 겪었거나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유전자 재조합 백신 접종도 가능하다.

어떤 백신을 맞더라도 용량은 성인과 동일하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청소년 2가 백신 접종의 안전성은 이전 단가백신과 유사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미국 12~17세가 보인 2가 백신 접종 이상 사례 중 94.3%가 '주사부위 통증, 피로, 발열' 등 일반적 증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보다 앞서 2가 백신을 접종한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에는 이상 사례 신고율이 단가백신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은 오미크론 변이주에 3~5배 더 쉽게 걸리고, 두 번째 감염 위험이 성인보다 약 1.8배 높다"며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2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 계획은 소아·청소년 및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해당 전문가들은 "청소년 고위험군은 3차접종(3월14일)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며 "청소년의 2가 백신 안전성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속한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광주지방보훈청, '2022년 송년 취업 역량 강화 워크숍'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정홍식)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난 7일 5년 이상 군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2022년 송년 취업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김재환기자



광주 남부소방, 119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 특별교육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현장활동 중 감염성 질환에 노출이 잦은 119구조·구급대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광주 동부소방,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 동구 대인시장 일대에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나주경찰, 국가중요시설 테러러 안전점검 실시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최근 관내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테러대비 태세를 점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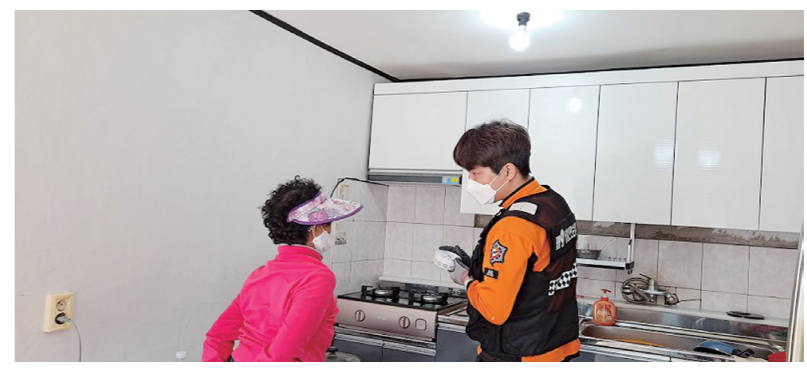
나주=송준표기자



진도소방, 겨울철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지난 5일 광주광역시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겨울철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특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담양소방, 반지하 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담양소방서는 관내 반지하 주거시설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文 전 대통령 기르던 풍산개 '곰이' '송강' 광주에 새 보금자리 마련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곰이(암컷)'와 '송강(수컷)'이 광주 우치동물원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우치동물원에 문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직접 키우다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육사와 함께 잔디밭에 나온 곰이와 송강은 실 새 없이 돌아다니며 활기찬 모습이였다. 시민들도 광주와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된 두 풍산개에게 손을 내밀거나 이름을 연호하며 크게 환영했다.

곰이와 송강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청와대에 선물로 보내 온 풍산개다. 같은 해 11월 곰이와 송강 사이에서 자견 '별' 등 6마리를 출산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가 소유이며 대통령기록물인 퇴임 뒤에도 풍산개들을 맡아 길러왔지만, 정부가 지원입법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했다.

이후 곰이와 송강은 경북대병원 수의학과에서 각종 검사와 치료를

정부 반환 이후 '새 보금자리'...광주 우치동물원에 대해 건강상태 비교적 양호...적응기 거쳐 자견 '별'과도 만나

받으며 지내다, 대통령기록관과 광주시 간 협의를 거쳐 우치동물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대통령기록관이어서 분양이 아닌 대여 형식이다. 시 산하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9일 오후 경북대병원에서 곰이와 송강을 넘겨 받았다. 국가기록물인 만큼 관리 책임이 뒤따르고, 사육비용 등 모든 적정관리 책임은 광주시가 맡는다.

우치동물원 측은 곰이와 송강을 동물원 내 실내사육장(입원실)에서 기르며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곰이와 송강은 각각 2017년 3월과 11월 태어나 견령은 5~6년생이다. 사람 나이로 치면 30대에 해당한다.

곰이는 신장 결석이 있어 특수 사료를 먹고 있고 외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송강이는 외염 증상이 있지만 완치 단계다. 두

풍산개의 건강 상태는 견령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사육사들은 전했다.

우치동물원은 곰이와 송강을 위한 적절한 사육공간과 임시 야외 놀이터 등을 마련하고 전담 사육사 2명을 선정했다.

현재 동물원 내에는 자견 '별'이도 기르고 있다. 3년 만에 부모·자식견이 만나 함께 지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곰이와 송강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당분간은 분리할 계획이다.

우치공원 측은 "곰이와 송강 모두 건강한 편이다. 곰이는 외과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환경인 만큼 부적응 등에 대비해 특별 관리하겠다"며 "당분간은 시민 관람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겨울 맞아 새단장한 곰새김판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새단장한 서울곰새김판에 '겨울이 온 세상에 말했다, 홀로 추운 삶은 없다'고 문구가 적혀 있다.

무안서 경차 가로수·암벽 충격...40대 운전자 숨져

무안군 한 간선 도로에서 40대 경차 운전자가 가로수와 암벽을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12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 46분께 무안군 봉탄면 811번 지방도(편도 1차선 도로)에서 A(43·여)씨가 몰던 경차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암벽을 잇따라 들이받

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숨졌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이러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출하·물동량 회복세' 광주·전남 물류 정상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막혔던 광주·전남 물류가 정상화됐다.

12일 광주·전남 등에 따르면, 전남 지역 시멘트 제조시설 5곳은 지난 9일 이후 하루 평균 시멘트 출하량이 시멘트 2만 3000t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일 최대 출하량(2만 6300t)에 근접, 파업 이전으로 완전 정상화됐다.

시멘트 제조 시설이 없는 광주 역시 레미콘 출하 물량도 평소와 비슷한 일 평균 6000t으로 회복됐다.

레미콘·철근 등 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일부 공정에 차질을 빚던 건설 현장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파업 기간 중 광주는 관급·민간공사 현장 20여 곳이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일시 중단됐으나 이날 오전부터는 전면 재개됐다. 공정 일시 중단을 겪었던 전남 지역 건설현장 18곳도 모든 자재 납품과 공사가 지지개를 켜다.

다만 그동안 밀린 산·환적 탓에 컨테이너 화물이 쌓여있는 비율(장치율)은 67.0%로 평소보다 다소 높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오전 0시를 기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보름 만에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철회했다.

화물연대는 정부 여당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적용 품목 확대' 등을 꾸준히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김재환기자